

A man travelled to an African country on a mission trip. He stayed with a Christian family that was desperately poor. Their only possessions were the clothes on their backs, a tiny one-room shelter and a chicken. As the mission trip drew to a close, the host family held a special dinner in the man's honour, at which soup was served for the main course. To the man's astonishment, there was meat in the soup. He wondered what kind of meat it could be. Suddenly he realized that he must be eating chicken soup.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가난했던 한 크리스천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그 가족이 소유한 유일한 것은 입고 있는 옷과 방 한 칸짜리 작은 거처, 그리고 닭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 그 가정은 그 사람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 만찬의 주 요리로 수프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프에는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무슨 고기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닭고기 수프가 틀림없음을 깨달았습니다.

The man was so overwhelmed by the generosity of this Christian family that tears began streaming down his cheeks. He marvelled that the family had offered up their only chicken for him. Yet to the father of the household, this sacrifice seemed like the most natural thing in the world. They were willing to share everything they had with the missionary. After all, he was a brother in Christ, and therefore virtually a member of their own family. 그 사람은 그 크리스천 가정의 관대함에 너무나 감동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가정이 하나밖에 없는 닭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에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이 희생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그 선교사와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으며, 따라서 사실상 그들 가정의 일원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The New Testament tells Christians to find their personal and family identity in Jesus Christ: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12). Therefore,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belongs to the same family. Indeed, the family God has established through Jesus Christ is the Christian's first family - it takes precedence even over one's biological or nuclear family (Mark 3:31-35). If anyone understood the family of God, it was Paul. There are more than 100 references to brothers and sisters - people like Quartus, Sosthenes, Phoebe and Apphia - in the writings of Paul. In his first letter to Timothy Paul calls the church itself God's "household" (1 Timothy 3:15). In other words, Timothy's congregation is not just like a family - it is his family. To help Timothy with his pastoral relationships, Paul uses the analogy of a human family (in vv. 1-2 of chapter 5), where there is a father, a mother, brothers and sisters. If Timothy relates to the members of his congregation in the way he would treat his own family members, then he will be greatly helped to know how to approach each of them in appropriate ways and without awkwardness to himself or to them. This comparison of the local church to a human family is a helpful one, because it takes into account differences in gender and age and is able to cater for these in practice.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개인 및 가족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같은 가족에 속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가족은 크리스천의 첫 가족입니다 - 이는 심지의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 혹은 핵가족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31-35). 만약 하나님의 가족을 이해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울이었습시다. 바울의 서신에는 구아도, 소스데네, 뵈뵈, 압비아와 같은 형제, 자매에 대한 언급이 100 번 이상 나옵니다. 디모데에 보낸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3:15).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회중은 단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입니다. 그 목양의 관계에 있어 디모데를 돕기 위해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는 한 가정을 비유에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5 장 1-2 절). 만약 디모데가 교회 회중의 일원들을 그 자신의 가족들을 다루듯이 한다면, 그 자신이나 회중들에게 어색함 없이 어떻게 그들 각각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교회를 한 가정에 비유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이는 성별 및 나이의 차이를 고려해 실행에 있어 그 차이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Family Matters (vv. 1-2)

House Rules 25th September, 2016

(1 Timothy 5:1-8; Psalm 68:4-6; Luke 2:36-40)

In an orderly family, each person is treated with respect, according to his or her age and gender. God's household is no exception: "Do not rebuke an older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older women as mothers, and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bsolute purity" (vv. 1-2).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family should be treated in the proper way.

1. 가족 문제 (1-2 절)

질서 있는 가정에서 각 사람은 그 나이 혹은 성별에 따라 존중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1-2 절). 하나님 가족의 각 일원 그리고 모든 일원은 적절한 방식으로 대해져야 합니다.

Showing respect for one's elders is not simply a cultural convention - it is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Old Testament law, the young should "rise in the presence of the aged [and] show respect for the elderly" (Leviticus 19:32). There may be times when the pastor must confront an erring or troublemaking older man in the Christian fellowship. If so, that man must be dealt with respectfully on the basis of his seniority. Even when a rebuke is called for, a younger minister must not be overbearing. Instead of being harsh, a minister should deal with an older man gently and tactfully, the way he would appeal to his own father. He should "exhort" the older man, aiming to win him over from his mistakes by means of a sympathetic appeal.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관습이 아닙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너는 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레위기 19:32). 목회자가 크리스천 펠로십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을 대면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은 연장자임을 감안해 정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노인에 대한 질책이 요구될 지라도, 나이가 더 어린 목사는 고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가혹하게 다루는 대신에 목사는 마치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호소하듯이 부드럽고 요령 있게 그 연장자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는 노인을 "권고하여", 동정적인 호소에 의해 그 노인의 실수로부터 그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Younger men should be treated rather differently. Timothy should not look down on them or talk down to them. Instead, he should treat them as peers: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The wisdom of running a household this way is obvious. At the same time younger men are treating older men with deference, older men are treating younger men as equals. Thus dignity and intimacy are both maintained in their relationships. The principle here is vital to the peace of the famil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lder Christians to bridge the general gap to younger Christians,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The proper way to talk to a toddler is to get down to his or her level, face to face, on your haunches or even hands and knees. One of the best ways to help younger Christians become mature is to treat them with a measure of equality. Yet there is a danger here for the young. Even if older Christians treat them as equals, they should not think of themselves as equals - rather they should treat their seniors with humility.

젊은이들은 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게 알보듯이 말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그들을 동료로 대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사를 처리하는 것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존중으로 대할 때에,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해야 위엄과 친밀함 둘 다 그들의 관계에 유지됩니다. 이 원칙은 가정의 평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어린 크리스천들과의 전반적인 차이를 메우는 것은 보다 나이든 크리스천의 책임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적절한 방식은 그 아이의 높이에 맞추어 등을 굽히거나 아니면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크리스천의 성숙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동등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동등하게 대할지라도,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오히려 겸손함으로 연장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Younger ministers, and indeed all Christians, should relate to women as respectfully as they relate to men. Older women should be treated like mothers. They should be loved and listened to. They should be protected and cared for. There is a touching example from Paul's own life, when, at the end of his letter to the church Rome, he greets "Rufus, chosen in the Lord, and his mother, who has been a mother to me too" (Romans 16:13). Finally, to complete the portrait, younger women should be treated as sisters.

House Rules 25th September, 2016

(1 Timothy 5:1-8; Psalm 68:4-6; Luke 2:36-40)

Within God's family, men and women ought to display tender affection towards one another, the kind of fondness that a brother has for a younger sister. But Paul quickly adds a warning: "with absolute purity". As close as a relationship between siblings may be, there must not be anything improper about it. Here the concern is clearly sexual - a minister must not compromise his commitment to Christ by having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one of his sisters in Christ. Paul was anxious to make sure that Timothy's ministry was not compromised. As we shall see next time, not all the young women in Ephesus were discreet (vv. 11-13), and Timothy needed to be careful in his relationships with women in the church.

보다 젊은 목사들, 그리고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남자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여성을 대해야 합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 받아야 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 감동적인 예가 있는데, 로마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 말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안부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젊은 여자들은 자매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부드러운 사랑, 오빠가 여동생에게 갖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재빨리 경고의 말을 덧붙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형제 간의 관계가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부적절한 것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성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 목사는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 중 하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이 위태로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의 모든 젊은 여자들이 몸가짐에 신중하지는 않았으며 (1-13 절), 디모데는 교회 내 여성들과의 관계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2. A Protector of Widows

The surprising thing about the house rules Paul gives Timothy is that they say so little about most family relationships and so much about widows. Why is this? For a start, from the early chapters of Acts, it is clear that from the beginning of the church there were many widows among the Christians. It may be that they chose to move to the urban centres to finish their days because the larger city churches could do more for their support. This would explain the sizeable widow groups in Jerusalem (Acts 6:1-6 -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care and feeding of widows which led to the appointment of the first deacons) and here in Ephesus. The amount of space Paul gives here to widows suggests that in the church in Ephesus they presented practical problems that needed addressing.

2. 과부들의 보호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회 내 규칙 중 놀라운 점은 그것이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반면 과부들에 관해서는 많은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사도행전의 앞 장들을 보면, 교회의 시작부터 크리스천 가운데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아마도 과부들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찾아 도심지로 이주해 그곳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치기로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6:1-6 - 최초의 집사 임명으로 이어졌던 과부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일과 관련된 논란)과 여기 에베소에 거주하던 상당한 규모의 과부 그룹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과부들에게 할애하고 있는 분량은 에베소 교회에서 과부들이 실질적인 문제들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But the attention to detail in these instructions given by Paul to Timothy also says something important about God. God ha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for single women, especially for widows. Actually the Greek word for "widow" refers to any woman without a husband, and not simply to a woman whose husband had died. Kent Hughes in his commentary wisely comments, "Today the application of this passage should be wider, because modern American culture has produced a category of women virtually unknown in the first century - Christian women and children who have been abandoned by their spouses and left without family support. Godly single mothers are a new class of "widow". And those without family and resources are the church's sacred responsibility".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지침들에서 그 세부사항에 기울인 주의는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독신 여성, 특히 과부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과부"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단순히 남편이 죽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는 모든 여자를 지칭합니다. 켄트 휴즈 목사는 자신의 논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구절은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대 미국 문화는

House Rules 25th September, 2016

(1 Timothy 5:1-8; Psalm 68:4-6; Luke 2:36-40)

1 세기에는 사실상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카테고리의 여성들 – 그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가족의 부양 없이 남겨진 크리스천 여자들과 자녀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경건한 싱글맘은 새로운 계층의 “과부”이다. 또한 가족과 재원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신성한 책임이다”.

In the Old Testament, God is called the protector or defender of widows. We see that written into the law (Deuteronomy 10:17-18) and into the Psalms (Psalm 68:4-6). Some of the most touching episodes in the Old Testament concern the care and feeding of widows. And, not surprisingly, Jesus also took special care for widows, bringing back to life an only son for the widow of Nain (Luke 7:11-15). Even on the cross, Jesus made provision for his own mother in her widowhood (John 19:25-27). The reason for God’s concern is that widows were vulnerable in the ancient world. They lacked the economic power to provide for their needs, especially in old age. Also, without the protection of a man, widows were sometimes exposed to physical danger. The same is often true today. God wants all his children to share their Father’s heart for the fatherless and husbandless. This means caring for widows first of all. The principle applies not only to widows, however, but to every family member who needs special care: the sick,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homeless and single mothers. God knows that as long as his weakest children are protected, his whole family will be safe.

구약에서 하나님은 과부들의 보호자 혹은 옹호자라 불렸습니다. 이는 율법 (신명기 10:17-18)과 시편 (시편 68:4-6)에 적혀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 몇몇은 과부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놀랄 것 없이, 예수님 역시 과부들을 특별히 보살피셨고, 나인에서 한 과부의 독자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11-15).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과부인 그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요한복음 19:25-27). 하나님의 이 같은 관심은 과부들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취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노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경제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남자의 보호 없이 과부들은 때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종종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과부들을 보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원칙이 단지 과부들뿐 아니라,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족의 일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병자와 노인, 장애인, 노숙자, 싱글맘.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약한 자녀들이 보호받는 한, 그분의 가족 모두가 안전할 것임을 아십니다.

3. Putting Religion into Practice

There are needy widows in nearly every church, of course, which is why Paul pleads their cause: “Give proper recognition to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v. 3). He then proceeds to offer several guidelines for assessing a widow’s true needs. The first qualification is that a true widow does not have independent means: “But if a widow has children or grandchildren, these should learn first of all to put their religion into practice by caring for their own family and so repaying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for this is pleasing to God” (v. 4). Widows who are all alone need special care from the church, whereas others can rely on family support.

3. 효를 행하는 것

거의 모든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옹호한 이유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3 절).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과부의 진정한 필요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지침을 줍니다. 첫째 자격요건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참 과부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4 절). 온전히 혼자인 과부는 교회의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To make sure that Christians do their duty, the Bible gives 2 motivations for caring for widows. First, support is something children owe their parents. After everything parents have done over the years, it is only fair for their children to provide for them in old age. In the economy of God, this is the way children can repay their parents.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children need to provide all the care themselves. It is important to plan for the future, which may include carrying the proper medical and life insurance. There is also a legitimate place for professional care-givers, as well as for nursing homes, particularly in cases of dementia or chronic illness. Bu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n to make sure that their parents receive the best possible care. Not only is family loyalty something children owe to their

(1 Timothy 5:1-8; Psalm 68:4-6; Luke 2:36-40)

parents, but it is also something they owe to God. This is the second motive Paul offers: caring for family needs is “pleasing to God”. God is glorified when Christians love and care for their families.

크리스천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과부를 돌보아야 할 두 가지 동기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양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빚진 것입니다. 부모가 수년 간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 후에, 자녀들이 노년에 그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모든 보살핌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적절한 건강 보험과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치매나 만성 질환의 경우, 요양원뿐 아니라 전문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가 최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가족 간의 충성심을 빚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동기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그 가족을 사랑하고 돌볼 때에 영광 받으십니다.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amily care, Paul issues this strong warning: “If anyone does not provide for his relatives, and especially for his immediate family,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unbeliever” (v.8). Even non-Christians have a sense of duty to their relatives, especially ones living under their own roof. If even unbelievers out of natural affection care for their relatives, how much more ought Christians, who claim to know the God of compassion! The failure to make proper provision for ailing and aged family members is a practical denial of the faith, and exposes a Christian to the criticisms even of non-Christians. No matter how eloquent the man’s testimony may be, his life denies his Christianity. This warning needs to be heard in our day, because we do not live in the most compassionate of times. In many cases, aged or dependent parents are abandoned in nursing homes where they do not receive the attention and affection they need and deserve. Christians who have had abusive or neglectful parents will find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respond to the Bible’s teaching here. But the healing mercies of God’s grace in Jesus Christ can enable even traumatised children to extend forgiveness and to show honour to unworthy parents in their later years. The way Christians care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ought to proclaim the love of God, the compassion of Christ. So should the way we care for other people’s parents when, for example, we share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in local nursing homes and aged care facilities. We are the children of a Father who is the Protector and Defender of Widows, and therefore we are called to be agents of his protecting and providing grace. 가족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 절).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조차 그들의 친척, 특히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의무감을 갖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애정에서 우러나 그 친척들을 돌본다면 하나님의 연민을 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더 많이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병들고 나이든 가족 구성원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믿음의 배반이며, 크리스천을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비판에 노출시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창하게 간증을 하건 간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연민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나이 들거나 자식에 의존하는 부모는 그들이 받아야 하고 받아 마땅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는 요양원에 버려집니다. 학대하거나 태만한 부모 밑에서 자란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이 가르침에 응답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치유의 자비는 정신적 외상을 받은 자녀들조차 그 말년에 그럴 가치가 없는 부모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공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연민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양로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눌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과부들의 보호자이자 옹호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따라서 그분의 보호하고 돌보시는 은혜의 대리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4. The Praying Widow

No matter what her economic status may be, if a widow belongs to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he is never alone - she always has a family. Even if no one else will help her, the church will show her mercy because the church is her family. In the church she is to be given “proper recognition”. She is to be helped in the meeting of her emotional and material needs. Anyone who takes care of an older woman - doing her shopping, providing transport for her, being her companion, mowing her lawns, or

House Rules 25th September, 2016

(1 Timothy 5:1-8; Psalm 68:4-6; Luke 2:36-40)

whatever - gives her proper recognition. Paul has already explained how a widow physically qualifies for support - she must be without independent means, even destitute. Now he adds a spiritual qualification: she must be faithful: "The widow who is really in need and left all alone puts her hope in God and continues night and day to pray and ask God for help" (v.5). She is not overwhelmed by her circumstances. Instead, she puts all her hope in God. She throws herself upon his mercy, and then she finds that she is not alone after all, because God is with her.

4. 기도하는 과부

그 경제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있다면,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을 때조차, 교회는 그녀의 가족이므로 그녀에게 자비를 보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녀는 "존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적 및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나이든 여자를 돌보는 자는 누구든지 - 쇼핑을 해주고, 교통편을 제공하고, 동무가 되어주며, 잔디를 깎아주거나 무엇이 되든지 간에 - 그녀를 존대합니다. 바울은 이미 과부가 도움을 받기 위한 물질적 자격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 그녀는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야 하며, 극빈층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영적 자격요건을 더합니다: 그녀는 신실해야 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 절). 그녀는 자신의 환경에 압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면, 자신이 결국에는 외롭지 않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This verse calls Christian widows to a unique ministry of intercession, both publicly and privately. Susan Hunt writes about this ministry in her book, "By Design: God's Distinctive Calling for Women": "It seems to me that widows have entered into a dimension of dependence on God that prepares them for the ministry of intercessory prayer...Older women who do not have the daily responsibilities of jobs are another power source for intercessory prayer." Perhaps the best biblical example of the praying widow is Anna, the prophetess at the temple in Jerusalem, at the time when Mary and Joseph came to present the baby Jesus to the Lord and offer the appropriate sacrifice. Luke tells us that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Luke 2:37). Paul almost seems to echo this passage when he encourages widows to continue "night and day to pray and to ask God for help".

이 절은 크리스천 과부들을 공개적으로 또 사적으로, 독특한 중보 사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잔 헌트는 그녀의 책에서 이 사역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 "내가 보기에 과부들은 중보 기도의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차원에 들어섰다...매일 일해야 하는 책임이 없는 나이든 여자들은 중보 기도를 위한 또 다른 힘의 원천이다." 아마도 성경에서 기도하는 과부의 가장 좋은 예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선지자였던 안나일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37). 바울이 과부들에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라고 권할 때, 이 단락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 remember as a young elder that one of the households assigned to me as part of my elder's district comprised 3 elderly women in their early 70's, one widow and two single women. They always requested that each time I visited (every 3 months) I bring with me a list of matters (and people) for prayer in relation to the life of the church. The prayers of such women - widows and single older women - give strength to the church. As a result of their intercession, young mothers with their toddlers, men and women on their jobs, students at school and university, those exercising various ministries in the life of the church and missionaries at home and overseas all receive spiritual help for their work. Perhaps you are one of the women God is calling to the crucial ministry of intercessory prayer. If so, embrace the joy and responsibility of it.

제가 젊은 장로였을 때 제가 맡은 구역의 일환으로 제게 맡겨진 교회 일 중 하나는 세 명의 나이든 여인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과부고 두 명은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가 방문할 때마다 (3 개월에 한번씩) 교회 생활 (및 사람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 목록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 - 과부와 연로한 독신 여성들-의 기도는 교회에 힘을 줍니다. 그들의 중보 기도 결과, 유아가 있는 젊은 엄마들, 직장을 가진 남녀, 학생들과 대학생들, 교회 생활에서 다양한 사역을 맡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국내외 선교사들 모두는 그들의 일에 영적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

House Rules 25th September, 2016
(1 Timothy 5:1-8; Psalm 68:4-6; Luke 2:36-40)

여러분이 하나님에 중보 기도라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위해 부르고 있는 여성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기쁨과 책임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Paul's passionate call to pray explains why his next words are so harsh: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v. 6). This widow is no woman of prayer. She has not fixed her hope on God. Instead, she takes comfort in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lives for pleasure rather than God. Such a woman belongs to the living dead, because although she is alive physically, she is not alive to God through faith. She is as good as dead, spiritually speaking. What the Scripture implies is that a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has no right to expect any help from the church at all. This is a reminder that the mercy of the church is not an entitlement. The church has a responsibility to identify people's needs and ultimate commitments. Often this means that elders and deacons need to ask personal questions such as, "What resources do you have?" "What do you need to get by?" "How is your walk with the Lord?" Then it is up to the church's leaders to make judgments about whom to help, and how to help them.

바울의 기도로의 열정적인 부름은 그가 다음에 하는 말이 왜 그토록 가혹한지 설명해줍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6 절). 이 과부는 기도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에서 위안을 얻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위해 삽니다. 그러한 여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에 속하는데, 이는 그녀가 육체적으로 살았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암시하는 것은 쾌락을 위해 사는 과부는 교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자비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와 궁극적 헌신을 밝혀낼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장로들과 집사들이 다음과 같은 사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재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누구를 도울지,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 결정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These rules for God's household are not just for Timothy, or for ministers, but for the whole church: "Give the people these instructions, too, so that no one may be open to blame" (v. 7). How important it is for the leaders of the church, for the families and for individuals to be taught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in the household of God. For the faithful carrying out of these responsibilities set out in vv. 1-8 of 1 Timothy 5 is so important to the church's reputation in the world as the family of the God who is rich in mercy and abounding love. Are we faithfully carrying out those responsibilities in the life of our church?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러한 규칙들은 디모데나 목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7 절). 교회 지도자들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 각자의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5 장 1-8 절에 나열된 이러한 책임들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명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러한 책임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